

## 미 증시, 물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8월 CPI

•미 증시는 물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혼조세 마감. 장 시작 전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두 달 연속 상승하며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워. 이에 CPI 발표 이후 국채수익률 상승,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나며 지수 선물 하락세가 확대되기도 했으나 연준의 긴축 의지를 추가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에 안정화되는 모습 보임. 전일 약세를 보였던 빅테크를 중심으로 반등하며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애플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상승폭을 제한시키기도 함. (다우 -0.20%, 나스닥 +0.29%, S&P500 +0.12%, 러셀2000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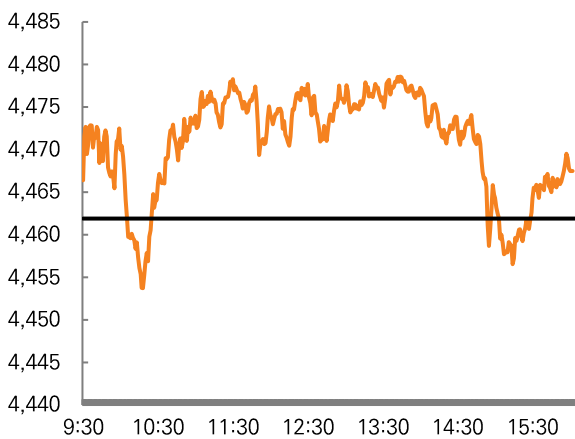
### 특징 종목: 빅테크 반등

•전일 약세를 보였던 빅테크의 반등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높여. 아마존(+2.00%)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1.18%), 엔비디아(+1.42%) 등 주요 기업들의 상승과 함께 올해 위축되었던 반도체 산업의 확장세가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50%)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ETF인 SOXX(+0.50%), SMH(+0.74%) 상승. 반면 3M(-5.86%)은 의료부문 분사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완료하겠다는 것과 내년 성장환경이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 또한 현재와 다음 분기에 전자제품과 소비자 부문의 약세가 예상된다고 밝히자 약세. 아메리칸항공(-5.74%)과 스피릿항공(-6.22%)은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해.

### 한국 증시 전망: 반도체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03%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1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6.13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1% 상승. KOSPI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이달 들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 반도체 업종에 대한 월간 누적 순매수는 8550억원이지만, 삼성전자는 1조 1220억원으로 이를 상회. 빠르면 3분기부터 이익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감 높아. 그 동안 재고 조정과 감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개선,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생산 본격화 등이 펀더멘탈 개선과 주가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 높아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534.70	-0.07	상해종합	3,123.07	-0.45
KOSDAQ	882.72	-1.71	홍콩항셱	18,009.22	-0.09
DOW	34,575.53	-0.20	베트남	1,238.39	-0.57
NASDAQ	13,813.58	+0.29	유로스톡스 50	4,223.48	-0.44
S&P 500	4,467.44	+0.12	영국	7,525.99	-0.02
캐나다	20,278.94	+0.28	독일	15,654.03	-0.39
일본	32,706.52	-0.21	프랑스	7,222.57	-0.4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미 증시는 물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혼조세 마감. 장 시작 전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두 달 연속 상승하며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워. 이에 CPI 발표 이후 국채수익률 상승,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나며 지수 선물 하락세가 확대되기도 했으나 연준의 긴축 의지를 추가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에 안정화되는 모습 보임. 전일 약세를 보였던 빅테크를 중심으로 반등하며 장중 상승 폭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애플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상승폭을 제한시키기도 함. 특히 이 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 주자로 열린 비공개시포럼에 일론 머스크(테슬라), 마크 주커버그(메타 플랫폼스), 순다르 피차이(알파벳)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해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알려짐.

### #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이 날 장 시작 전 공개된 8월 CPI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추후 경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던져 줬다고 볼 수 있음. 우선 헤드라인 CPI는 전년대비 두 달 연속 상승(6월: 3.0%→7월:3.2%→8월:3.7%)하며 시장 예상(3.6%)을 상회함. 특히 전월대비로는 시장 예상(0.6%)에 부합하지는 했지만 지난 달 0.2% 증가에서 크게 증가함. 물론 증가 폭의 절반 이상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상품 가격 상승폭(7월: 0.3%→8월: 10.6%)이 컸기 때문임. 또한 주거비(7월: 0.4%→8월: 0.3%)는 40개월 연속 상승하였고, 식품 인플레이션(7월: 0.2%→8월: 0.2%)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 보임.

다만 가격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전년대비 5개월 연속 둔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핵심 상품 중 비중이 높은 중고차 및 트럭(7월: -5.6%→8월: -6.6%)이 10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주거비(7월: 7.8%→8월: 7.3%) 역시 꾸준히 완화되며 핵심 CPI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식품, 에너지 및 주거비까지 제외한 핵심 서비스물가(슈퍼코어 인플레이션)는 전월대비 0.37%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4개월 동안 보인 속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임. 또한 전년대비 기준 4.1%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4%대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향후 물가 경로에 대한 우려와 연준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됨

### # 모기지 신청 감소(MBA)

미국의 모기지 신청은 9월 8일로 끝난 주에 직전대비 0.8%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주 2.9% 감소에 이어 지난 8주 동안 7번이나 감소를 기록함. 주택담보대출 채용자 신청은 5.4% 감소한 반면 주택구입 신청은 1.3% 증가.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한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은 전주대비 6bp 상승한 7.27%를 기록해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8월 이자율 7.31%에 거의 근접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빅테크 반등

전일 약세를 보였던 빅테크의 반등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높여, 아마존(+2.00%)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1.18%), 엔비디아(+1.42%) 등 주요 기업들의 상승과 함께 올해 위축되었던 반도체 산업의 확장세가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50%)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ETF인 SOXX(+0.50%), SMH(+0.74%) 상승. 포드(+1.73%)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베스트셀링카인 F-150 픽업트럭의 하이브리드 생산량을 내년에 두 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또한 전미자동차노조(UAW)와의 협상 시한을 하루(14일 자정) 남겨둔 가운데, 노조측 급여 인상 요구가 완화됐다는 소식도 전해져 GM(+0.39%) 역시 상승. 미국 최대장거리 트럭 운송회사인 JB헛트(+4.25%) CEO는 소매업체들이 과잉 재고 대부분을 줄여 미국 화물 경기 침체가 끝나고 점진적인 화물 증가가 기대한다고 밝히자 강세.

반면 3M(-5.86%)은 의료부문 분사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완료하겠다는 것과 내년 성장환경이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 또한 현재와 다음 분기에 전자제품과 소비자 부문의 약세가 예상된다고 밝히자 약세. 아메리칸항공(-5.74%)과 스피릿항공(-6.22%)은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해. 넷플릭스(-5.17%)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할리우드 파업이 격화되면서 시각효과 관련 아티스트들이 만장일치로 노조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약세. 또한 샤오핑(-3.11%)과 니오(-4.64%)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하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 美 국채수익률 및 달러 안정세

장 시작 전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두 달 연속 상승하며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워. 이에 CPI 발표 이후 국채수익률 상승,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나며 지수 선물 하락세가 확대되기도 했으나 연준의 긴축 의지를 추가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에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 특히 10년 물 국채수익률은 4.34%까지 상승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8월 22일 고점(4.36%)에 거의 근접하기도. 그러나 고점대비 9bp 하락한 4.25%에 마감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월간보고서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OPEC 산유국의 감산 영향으로 올해 원유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이란 내용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 주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한 증가 소식에 보합 마감

한국  
주식시장 전망

## Risk Heaven, 반도체?

MSCI 한국 지수 ETF는 0.03%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1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6.13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1% 상승. KOSPI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이달 들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 반도체 업종에 대한 월간 누적 순매수는 8550억원이지만, 삼성전자는 1조 1220억원으로 이를 상회. 따르면 3분기부터 이익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감 높아. 그 동안 재고 조정과 감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개선,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생산 본격화 등이 펀더멘털 개선과 주가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 높아



## 유럽,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16	대형 가치주 ETF (IVE)	-0.04
클린테크 ETF (CTEC)	-0.59	중형 가치주 ETF (IWS)	-0.68
소매업체 ETF (XLY)	+0.79	소형 가치주 ETF (IWN)	-0.69
온라인소매 ETF (EBIZ)	-0.48	대형 성장주 ETF (VUG)	+0.27
미국 인프라 ETF (PAVE)	-1.02	중형 성장주 ETF (IWP)	-0.40
핀테크 ETF (FINX)	-0.93	소형 성장주 ETF (IWO)	-0.7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80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55
클라우드 ETF (CLOU)	-1.1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64
사이버보안 ETF (BUG)	-0.48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13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39	미국 국채 ETF (IEF)	+0.1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88	하이일드 ETF (JNK)	+0.25
바이오섹터 ETF (IBB)	-0.30	신흥국 채권 ETF (EMBD)	+0.42
로봇&AI ETF (BOTZ)	-0.62	물가연동채 ETF (TIP)	+0.13
반도체 ETF (SMH)	+0.8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유틸리티	324.17	+1.20	+3.95	-0.98
경기소비재	1,367.22	+0.90	+3.31	+2.14
커뮤니케이션	229.52	+0.40	+0.96	+2.07
IT	3,024.55	+0.31	-2.35	+2.70
필수소비재	756.43	+0.26	+0.87	-3.66
헬스케어	1,543.72	+0.02	+0.97	-2.25
금융	574.68	-0.22	+1.03	-0.90
소재	511.09	-0.59	-0.74	-1.82
산업재	881.52	-0.67	-1.81	-4.18
에너지	702.32	-0.76	+0.94	+2.25
부동산	226.86	-1.03	-0.96	-3.2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8.52	+0.03	+1.52	Dollar Index	104.773	+0.06	-0.08
브렌트유	91.88	+0.17	+1.79	EUR/USD	1.0730	-0.22	+0.03
천연가스	2.68	-1.06	+8.13	USD/JPY	147.46	+0.26	-0.14
금	1,932.50	-0.24	-0.70	GBP/USD	1.2490	0.00	-0.14
은	23.18	-1.16	-1.59	USD/CHF	0.8937	+0.27	+0.29
알루미늄	2,217.50	+0.96	+1.09	AUD/USD	0.6422	-0.06	+0.63
전기동	8,417.00	+0.31	+0.54	USD/CAD	1.3549	-0.03	-0.64
아연	2,526.00	+1.90	+2.56	USD/RUB	96.1983	+1.92	-1.96
옥수수	482.25	+1.15	-0.77	USD/BRL	4.9163	-0.64	-1.10
밀	597.25	+1.40	-2.18	USD/CNH	7.2719	-0.40	-0.67
대두	1,349.75	+0.33	-1.83	USD/KRW	1,330.00	+0.17	-0.04
커피	151.95	-0.03	-1.20	USD/KRW NDF1M	1,326.11	+0.11	-0.4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249	-3.16	-3.12	스페인	3.722	+2.40	+1.80
한국	3.947	-2.30	+4.20	포르투갈	3.407	+2.90	-0.40
일본	0.713	+0.20	+5.30	그리스	4.058	+1.10	+3.40
독일	2.651	+0.80	-0.20	이탈리아	4.447	+4.50	+4.4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